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미 FTC,
BP Amoco-Arco간
3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저지키로**

석유산업에서의 대형 기업결합 추세를 막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월 2일 BP Amoco사가 Atlantic Richfield Company를 300억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였다.

FTC 관리들은 당해 기업결합이 매우 반경쟁적이며, 이미 휘발유 가격이 전국평균 이상인 캘리포니아 및 기타 서부연안 주들에서 휘발유 가격의 상당한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기업들은 이를 부인하였다. BP Amoco사 및 Arco사는 전부 합쳐 알래스카주 석유생산의 70%를 지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석유의 상당부분은 미국 서해안 소비자들의 자동차연료로 쓰이게 된다.

관련기업 임원들은 서해안의 휘발유 가격은 알래스카주의 생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석유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는 이번 기업결합 처리를 석유산업에서의 통합에 대한 대강의 입장표명의 기회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석유산업에서는 이미 엑손의 모빌사 취득, BP사의 Amoco사 취득, Texaco사와 셸사의 공동마케팅 투자 사업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FTC의 3대2 표결로 인해 당해 기업결합 제안은 정부가 이의제기한 사건 중 최대 규모가 되었으며, 이는 FTC가 1980년대 초에 65억 달러 규모였던 모빌사의 Marathon Oil사 취득제안을 저지한 이후 석유산업에서 있게 된 첫번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FTC측 법률가들은 판사에게 당해 기업결합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곧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FTC가 기업결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관련기업들은 기업결합 계획을 종종 포기하였으나, BP Amoco사는 당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FTC와 법정에서 다들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최근 몇 주간 이들 관련기업은 바록 성과는 없었지만 다수의 FTC 위원들이 당해 기업결합을

인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타협안 및 자산매각을 제의한 반면, 기업 임원들은 자신들이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지난 주, 양측 법률가들이 법정에서의 다툼을 준비하기 시작한 가운데, BP Amoco사의 회장인 John Browne은 FTC 위원장인 Robert Pitofsky에게 당해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인가하여 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석유산업에서의 통합은 기업결합의 물결 속에서 더욱 엄밀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여 온 Pitofsky 위원장은 Browne 회장의 제안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 2000. 2. 2, The New York Times

**EBay사의 영업전략,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
조사대상에**

미국 법무부는 최대 인터넷 경매사 이트인 EBay사의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지난 12월에 시작된 이번 조사는 가격비교 구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수의 경매사이트의 요약정보를 검색, 게시하는 몇몇 웹사이트들과 EBay사간의 가열되는 분쟁과 관련이 있다.

EBay사는 이미 매사추세츠주 Burlington에 소재한 Bidder's Edge 사이트를 제소하였으며, 또다른 사이트인 AuctionWatch.com에 대하여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EBay 경매데이터의 수집 및 게시를 일시적으로 봉쇄하였다.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당해 조사 및 관련 소송들은 지적재산권의 통제라는 보다 광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고 있다. 주요 현안 중 하나는 경매대상목록과 같이 이용자가 만들어 낸 온라인 콘텐츠의 소유권 및 통제권에 관련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Irell & Manella 법률회사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Morgan Chu는 "인터넷사이트 보유자가 타인의 사이트에 게시한 정보를 통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법적 문제이며, EBay를 둘러싼 상황은 전자상거래, 개인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계약상 권리 및 지적재산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인터넷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산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산호세에 소재하고 있는 EBay사는 소비자용 웹사이트 경매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 사이트의 비판가들 및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동 사이트가 부당하게 독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경쟁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일부 정보수집업체들을 협력자로 끌어들이고 다른 수집업체들을 압박하여 퇴출시킬 수만 있다면 시장 통제가 가능해진다"라고 Palo Alto에 소재한 Carr & Ferrel 법률회사의 지적재산권 담당 변호사인 Jefferson Scher는 언급하였다.

Scher는 최근 EBay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 Morrisville에 소재하고 있는 AuctionRover.com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이트로 하여금 다른 온라인 경매사이트들로부터의 검색결과와는 별도로 EBay의 경매목록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경매정보 수집업체들은 이러한 내용이 단일하고 포괄적인 관련경매 목록보다는 이용자들에게 덜 효과적이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매정보 수집업체들은 소규모 기업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이 포괄적인 데이터 게시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EBay사는 이익을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웹회사들 중 하나로서, 최근 4분기 매출액은 7,300만 달러에 49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EBay사는 전자구매 가격비교 도구들에 대해 기술적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캘리포니아주 San Bruno에 소재하고 있는 AuctionWatch.com의 사장인 Rodrigo Sales는 언급하였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이라면 이는 대형 사이트들이 경매 외의 영역에서 일련의 검색방법을 제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Sales는 "실제로 가능한 결과 중 하

나는 불과 몇몇의 대형 업체들만이 인터넷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소비자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Bay사 소속 변호사인 Jay Monahan은 법무부에 대해 "몇몇 경매정보 수집업체들의 관행 중 일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기회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Monahan은 Bidder's Edge사의 서비스를 "인가받지 못한 재산권 침해행위"로서 "EBay에서의 구매자들을 혼동시키고 오도하는"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Bidder's Edge사와 AuctionWatch.com은 법무부와의 접촉은 있었으나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반트러스트법에 관련된 EBay사의 입장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다.

EBay에서의 판매자들은 EBay사에 경매목록에 대한 비배타적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계약에 서명하였으나, 이 계약조항은 법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UC Berkley 법대교수인 Pamela Samuelson은 언급하였다. 과거 EBay사는 "편찬 저작권"을 주장하기에는 입장이 약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편찬 저작권은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창작한 내용을 편집 및 재구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Scher는 "나는 EBay사가 경매정보 수집업체들을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EBay사가 경쟁정보 수집업체들이 EBay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EBay사는 반트러스트 소송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계약은 일정 경쟁업체를 다른 업체보다 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D.C.에 소재한 Morgan, Lewis & Bockius 법률회사의 반트러스트 전문변호사인 Scott Stempel은 법무부가 결국에는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전자상거래는 신속히 변화하므로 당해 반트러스트 조사는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에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EBay사는 매우 강력한 논점을 갖고 있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2000. 2. 5, Los Angeles Times

E U

유럽위원회, 카르푸 - 프로모데스 기업결합 승인

유럽위원회는 1월 25일, 프랑스 유통대기업인 카르푸사와 프로모데스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였다. 앞으로

프랑스, 스페인 양국에서의 독금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나, 일단은 유럽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기업결합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이 완성되면 이 기업의 매출액은 540억 유로화로서 미국 월마트사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유통기업이 탄생한다.

유럽위원회는 승인에 덧붙여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구매력이 독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만, 기업결합에 수반하여 카르푸사는 산하에 있는 프랑스 슈퍼체인점인 「코라」의 보유주 42%를 처분하는 외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 양국에서 수개의 점포를 매각할 방침이다.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 기업결합으로 탄생할 회사의 회장이 될 카르푸사의 베르나르 회장은 기업결합 후 일체화에 의한 비용삭감에 의해 "앞으로 3년 동안에 영업이익은 25% 증가, 순이익은 2배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기업결합으로 탄생할 회사는 세계 26개국에서 약 9,000개 점포를 운영하게 되며, 종업원 수는 약 24만명이 된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유럽에 진출해 있는 미국 월마트사에 대항한다는 계획이다. 카르푸사는 올해 치바(千葉)현 마쿠하리(幕張)지구에 일본 제 1호점을 개설한 외에 2001년에는 도쿄, 오사카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 2000. 1. 26, 일본경제신문

유럽위원회 카르텔 조사팀, 프랑스 맥주 업체 전격 현장조사

프랑스의 맥주 카르텔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조사관들은 프랑스 맥주업체인 Kronenbourg사, 동기업의 모회사인 Danone사 및 네덜란드 맥주업체인 하이네켄사의 프랑스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현장조사하였다.

동 조사는 작년도에 있었던 벨기에에서의 유사한 조사에 뒤이은 것이다. 동 위원회는 작년 7월 세계 4위의 맥주업체인 Interbrew사의 Leuven 본사를 현장조사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벨기에 맥주 제조업체협회, 그리고 Danone사의 자회사인 Alken Maes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월 25일 및 26일에 행해진 현장조사에서 조사관들은 가격조정협정, 또는 유통영역을 분할하거나 관련기업들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의 증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맥주업체들은 프랑스 맥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두 업체의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되고, Kronenbourg사의 점유율이 더 높아 40% 이상인 반면, 하이네켄사는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카르텔 운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결정될 경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

될 수 있다.

유럽위원회 관리들은 이번 사건이 벨기에나 프랑스의 자체조사와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당해 조사가 다른 EU 국가들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Danone사는 유럽위원회 관리들이 스트라스부르의 지사 및 파리의 본사를 방문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동 회사는 "우리는 규칙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Danone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999년 영업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후에 이루어졌는데, 잠정순수익은 시장에서의 10% 상승 예상과는 달리 13.8% 상승한 6억 8,100만 유로화(6억 8,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지난 7월 Interbrew사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현장조사는 당해 맥주업체가 다른 맥주 브랜드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구속조건부 거래 약정을 통해 맥주점 및 도매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속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의 일부였다.

■ 2000. 1. 29,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2000 조사**

유럽위원회는 2월 9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새로운 윈도우즈 2000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동 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당해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더욱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동 업체는 이미 미국 법무부와의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동 위원회는 새로운 윈도우즈 2000 소프트웨어 제품이 경쟁을 저해하도록 고안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동 위원회 경쟁담당위원은 미국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새로운 사무용 소프트웨어 일체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4주 내에 당해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해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번 조사가 2월 17일로 예정된 윈도우즈 2000의 출시시기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도 하였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즈 2000을 통해 PC 운영체제와 서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때 오로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만이 새로운 운영체제하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을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는 경쟁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미 동 회사가 PC 운영체제 범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EU는 말하였다.

Chase H&Q사 소속 분석가인

Christopher Galvin은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조사가 윈도우즈 2000의 대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동 회사의 주식에 대해 매수추천을 하였는데, Chase H&Q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해 어떠한 주식인수도 수행한 일이 없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통합함으로써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려 하였다고 하여 동 기업을 제소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연방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 2000. 2. 9, The New York Times

영 국

**경쟁위원회,
우유 공급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의
Robert Wiseman
Dairies 조사**

스코틀랜드 우유시장의 85%를 점하고 있는 Robert Wiseman Dairies사가 스코틀랜드 우유공급에 관한 영국 경쟁위원회 조사의 일부에 포함될 것

으로 보인다.

Wiseman사가 시장에서의 지위를 반경쟁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주장에 따라, 공정거래청장은 다음 주에 스코틀랜드 우유산업을 경쟁위원회 조사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기업은 논평을 거부하였다.

Wiseman사는 스코틀랜드에서 조직 확장 및 일련의 기업취득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가장 최근의 주요한 거래로서는 1997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Scottish Pride*사를 취득한 것이 있는데, 이로써 동 기업은 스코틀랜드 시장의 75%를 차지하게 되었다.

*Scottish Pride*사가 파산관재인의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Wiseman사는 *Scottish Pride*사의 원유 사업부문 매입을 위해 접근한 적이 있었다. 이는 독점·기업결합위원회(MMC, 경쟁위원회의 전신)의 조사로 이어졌으며, MMC는 당해 거래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Scottish Pride*사가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된 이후 이 기업결합은 결국 인가되었다. Wiseman사는 경쟁당국에 대해 가격정보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공정거래청장의 동의 없이는 스코틀랜드에서의 다른 우유 공급업체를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작년에는 Wiseman사가 소규모인 애버딘 우유협동조합 및 *Gilmour's Dairy*사를 매입할 때 이러한 공정거래청장의 동의를 부여된 바 있다.

대다수 낙농회사들에게 당해 산업에서의 신흥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Wiseman사는 1995년 맨체스터에서의 대형 낙농장의 개설 이후 남쪽으로의 확장을 계속해 왔다. 동 기업은 버밍햄 부근의 *Droitwich*에도 낙농장을 지을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경쟁위원회의 조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회부로 인해 낙농산업은 경쟁당국에 의한 또 한차례의 일련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작년에 MMC는 영국의 원유공급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영국 최대의 낙농업 협동조합인 *Milk Marque*사는 분할되었다.

1994년의 주식상장 이후 Wiseman사는 같은 해 *Mackies*사 및 *Kennerty Farm Dairies*사를 취득하였다. 1995년에는 도매협동조합회의 스코틀랜드 우유사업부문 및 *Hamiltons Dairies*사 양자를 모두 인수하였다. *Scottish Pride*사의 매입 이전에 Wiseman사는 이미 스코틀랜드 가공우유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 2000. 1. 28, *Financial Times*

공정거래청, 맥주 관련 명령 재검토시 맥주 가격 및 선택폭에 대해 집중조사

영국 공정거래청(OFT)은 2월 14일, 맥주 가격 및 주점 고객들이 이용가능한 선택의 폭이 최근 맥주산업에 대한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

혔다.

OFT는 당해 산업에서의 통합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동 산업에서는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4개 기업이 당해 시장의 84%를, 그리고 맥주제조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점회사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40%를 점하고 있다.

맥주브랜드 및 소규모 맥주회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주점회사들은 대형 맥주 제조업체들의 영업장 규모를 제한하고 임차인들이 경쟁업체들이 제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989년 맥주관련 명령(*Beer Orders*)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청장인 *John Bridgeman*은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및 선택의 폭과 관련하여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그리고 맥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전 도입된 조치들이 여전히 적절함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의 성명은 OFT가 1989년 맥주관련 명령에 관한 재검토시에 참고할 사항들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당해 재검토의 목적은 이 명령의 변경, 강화, 완화 내지 폐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다.

Bridgeman 청장은 당해 재검토의 한 요소는 당해 명령이 있을 후 발생한 구조적 변화의 영향, 그리고 수많은 신규 주점회사 및 맥주업체들의 진입이 “경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세를 암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OFT는 또한 외곽지역과 도심빈민가에서의 주점 폐점 및 지방 맥주업체

수의 감소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점포소유자와 맥주업체 내지 주점회사들간의 맥주공급계약에 대한 조사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이미 유럽위원회가 인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해 발표는 대체적으로 맥주업체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는 Bridgeman 청장이 당해 재검토를 8월 중순 이전에 마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규제에 관한 불확실성이 당해 부문의 주류가격을 억눌러 왔던 한 요소였다.

영국 제3위의 맥주업체이며 대형 주점 운영업체 중 하나인 Whitbread 사는 성명을 통해 "영국의 주점 및 맥주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우리는 당해 재검토가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참고사항도 Camara사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가격 및 소비자의 선택폭이 조사의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 회사는 6개월의 마감기한이 당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주점판매용 맥주가격이 과거 10년간 인플레이션보다 연간 3% 빠르게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맥주업체들은 현 공식통계는 지난 5월 이후 1파인트당 맥주 가격이 안정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여 왔다.

■ 2000. 2. 15, Financial Times

일본

공취위, 비타민 판매 국제 카르텔 의혹에 대해 제약회사 현장조사

일본과 유럽의 의약품·화학제품 제조업체들이 일본을 포함한 국제시장에서 비타민제품의 판매를 둘러싼 위법한 카르텔을 결성하였다는 의혹이 강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월 28일에 로슈(스위스), BASF(독일)의 일본법인 및 에자이, 다이이치(第一)제약 등의 본사 등 약 10여 개소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각 회사는 음료 및 식품에 첨가하는 비타민제품을 둘러싸고 점유율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하수량 및 가격을 조정하는 카르텔행위를 반복하여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타민제품은 국제적으로도 과점상태로 되어 있어, 카르텔에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로슈, BASF, 에자이, 다이이치제약 등은 작년, 비타민 A, C, E 등을 둘러싼 카르텔에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트러스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함께 11억 달러(약 1,200억 엔)의 벌금 지불에 응한 상태이다. 카르텔을 결성

한 것은 1990년 1월부터 1999년 2월까지로 되어 있다.

미·일 양국정부는 작년 독점금지법협력협정을 체결, 일본과 미국은 각각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상호통보, 조정, 심사요청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취위는 앞으로 협력협정에 의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력, 카르텔의 실태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 2000. 1. 28,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파친코·슬롯머신 최대업체인 「아루제」 현장조사

파친코·슬롯머신 등의 오락기 제조업체 중 최대인 「아루제」(본사 도쿄 고토(江東)구)가 인기 있는 파친코·슬롯머신기와 다른 파친코기를 연계판매하였다는 의혹이 강하여져, 공정취인위원회는 2월 3일,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동기업의 본사 및 영업소 등 약 10여 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루제사는 작년 11월부터 파친코·슬롯머신기인 「오오하나비(大花火)」를 전국의 파친코점, 파친코·슬롯머신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때 구형인 파친코·슬롯머신기 및 파친코기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오하나비」는 회전하는 부분이 3연식이 아닌 4연식인 것이 특징으로,

발매개시 때부터 동 기업의 주력상품이 되어 왔다.

연간 1,000억 엔 이상의 시장규모가 되는 파친코·슬롯머신기 판매에서 동 기업은 5할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인기상품이 겹치기 때문에 1997년경부터 급성장하여, 1998년 9월에는 상장기업이 되었다. 게임소프트개발회사 및 컴퓨터 상사 등 상장기업을 잇달아 M&A(기업결합 및 취득)로 산하에 넣는 등 적극적인 사업확장으로 알려져 있다.

■ 2000. 2. 4,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드레싱업체
「피에트로」 소매가격
구속혐의로 현장조사**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비가열타입 드레싱에서 일본 내 1위의 식품제조업체인 「피에트로」사(본사 후쿠오카시)가 소매점에 대하여 할인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소매가격을 구속하여 왔다는 의혹이 강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독점금지법(불공정한 거래방법) 위반의 혐의로 피에트로 본사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의 영업소 등 4개소에 대해 현장조사한 사실이 2월 15일 밝혀졌다. 드레싱 시장에서는 가열처리 상품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큐피사 등이 비가열타입 신제품을 근년에 다수 출품하고 있어, 공취위에서는 피에트로사가 고급성을 유지하여 차별화를 꾀

하려 하였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에트로사는 소매점이 드레싱을 할인판매할 때에 출하금지 및 출하제한, 제품 전량매수 등의 제재를 행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여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신용조사기관에 따르면 피에트로사는 1980년 12월에 창업한 회사로서 자본금 약 1억 7,000만 엔이며, 1999년 1/4분기의 매출액은 65억 엔에 달하고, 드레싱의 제조, 판매 외에 수도권 및 큐슈에서 약 80개의 이탈리아 요리 교외형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에트로사가 1983년도부터 판매를 개시한 「피에트로 드레싱」은 귀여운 둥근 뚜껑이 특징으로, 경영하는 인파스타 레스토랑에서 전채인 샐러드에 사용한 자기제조품 드레싱의 인기가 「로코미」로 확산되었으며, 가열처리하지 않았다는 「신선한 이미지」도 있어 평판이 좋아 인기가 급상승하였다.

주원료가 되는 양파를 효고(兵庫)현 아와지시마(淡路島)산의 「모미지」종으로 한정하는 등의 까다로운 선택에 덧붙여, 드레싱의 가격을 시장가격의 1.5배로 높여 설정하고 당초 거래선을 백화점 및 고급 식품재료점에 한정된 것이 효과를 보아 고급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 2000. 2. 16, 산케이신문